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최선…낙후된 경제 살리겠다”

공영민 고흥군수

특화 산단·우주과학교육 테마파크 등 8500억 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10년 뒤 10만 도시로 거듭날 것”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군민의 편에서는 화합과 통합의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고,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며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공 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 회복 지원금과 농어가 공익수당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주과학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 85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낙후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화두다. 비책은 있는가?

▲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비행 공역과 고흥 드론센터, 고흥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 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토대로 고흥을 드론중심 도시로 만들고 매년 드론 엑스포를 개최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또 고흥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6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젊은이들이 고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고흥도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관광산업도 관광객이 먹고 자고 가는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고흥관광 1천만 시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밤에도 빛나는 고흥 야간 명소 육성, 녹동 인공섬 정기적 드론쇼 개최, 웰니스 고흥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해 활기찬 고흥을 만들겠다.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떠오르는 고흥 미래 비전의 구체적 복안은?

▲ 총 사업비가 8000억인 대규모 사업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발사체 연구개발 종합지원센터’,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민간 발사장·조립용 클린룸’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기업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업단지 안에 ‘발사체 연구개발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 많은 우주기업들의 시험·인증 지원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와 연계해 ‘항우연 발사체 전남분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고흥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총력을 다 해 대응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향후 10년 뒤에는 인구 10만명의 ‘웅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장 행정형 기구 등 혁신 행정으로 펼칠 중요 주민복지 시책을 들면.

▲ 우리 고흥은 65세 이상 인구가 42.6%를 차지해 전국에서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다.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고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우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관해서는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 등을 병행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요가·노래교실· 노르딕 워킹 등 여성 건강 프로그램 확대와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 확대, 보육·청소년 시설 개선 등 장애인·저소득층·여성· 다문화가정·청소년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지원해 따뜻한 고흥을 만들겠다.

- 선거 과정 치열한 접전으로 지역화합이 많이 깨졌다. 복구할 대책은?

▲ 모든 군민이 100% 저를 지지했다는 마음으로 군정 정책을 수행할 때 차별을 두지 않고 만나고 소통할 것이다. 통합을 위해 군수인 제가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다. 또 군수 눈치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민원인이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원칙과 소신을 가질 때, 군민들은 자연스럽게 고흥군을 신뢰할 것이고 이는 고흥의 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역의 발전은 통합에서 출발한다. 고흥군민으로 하나 된 고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편에서 화합과 통합의 군정을 펼쳐나가겠다. 앞으로 4년간 군민과 함께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고흥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흥의 발전은 군민의 지지 없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 공직자가 앞장서고, 군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우주천문과학관서 별나라 여행 떠나요

내달 15일까지 특별관측회·에어로켓 등 만들기 체험 행사

고흥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다음달 15일까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은하수와 달 관측도 가능하고 다음달 4일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을 맞아 특별관측회가 마련된다. 사계절 중 여름밤에 가장 밝은 은하수를 배경으로 우리 전통 별자리에 등장하는 견우별과 직녀별을 하늘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군은 이 기간 중 달이 뜨는 시기에는 관람객들이 카메라로 직접 달을 찍을 수 있도록 망원경과 장비를 지원하고 방문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어로켓, 해시계, 태양계 모형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 반사 망원경과 돔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앙부일구 등 고천문기기와 태양계체중계,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고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모형이 전시돼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날씨에 따라 관측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천문과학관 방문 전 날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휴가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혼잡할 경우 관측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부터는 토성을 관측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토성과 목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최적기로 이 시기에 천문과학관을 방문하면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내달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고흥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

고흥군은 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참여자와 협약을 맺고 바우처택시14대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되어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관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고흥군은 현재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콜센터(1899-1100)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배차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000원으로 군내버스 이용요금 이내로 한정된다.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2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 수강생 모집

군, 29일까지

고흥군이 고흥 분청문화의 전통을 잇고 도자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10기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초급반(주·야간반), 중급반으로 구분돼 분청문화박물관 내 한옥다목적체험관에서 16주에 걸쳐 운영된다.

기존 도예강좌를 3회 이상 수료한 수강생은 중급반, 나머지는 초급반으로 수준별 맞춤형 강좌로 운영된다.

강의 내용은 고흥 분청사기의 이론 교육 및 7가지 기법을 활용한 생활자기 제작이며 초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기초이론 및 실생활 용기 제작, 중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심화이론 및 다양한 형태의 분청사기 제작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후 10기 도예강좌 수료식이 종료되면 분청문화박물관 2층 로비에서 ‘도예강좌 수강생 작품전시’를 진행해 강좌 결과물을 군민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분청문화박물관(061-830-555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운영한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는 5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참여했고, 이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강좌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